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빅테크 강세에 미국증시 상승..반도체는 약세

- 미국증시 빅테크 중심 상승
- 6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달 대비 0.3% 하락
- 반도체주 약세..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2.08%

Summary

미국증시 빅테크 중심 상승

7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이날 발표된 6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10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예상보다 상승세가 더 완만해진 가운데 상승.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대차대조표 축소 시사 발언과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공방, 그리고 반도체주의 급락에도 빅테크와 실적 호조 금융주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29% 상승한 52,658.64에 이날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38% 상승한 7,572.40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0.62% 상승한 26,269.23에 마감했고 러셀2000 지수는 0.39% 상승. 다만 나스닥100 지수는 반도체주 약세의 영향으로 0.28% 하락. 변동성지수 VIX는 5.03% 하락, 15.67에 마감.

(다우 +0.29%/ S&P500 +0.38%/ 나스닥 +0.62%/ 러셀2000 +0.39%)

소비자물가 이어 생산자물가지수도 예상하회

전일 소비자물가지수에 이어 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안정의 흐름을 보여줌.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PPI는 전달 대비 0.3% 하락해 보합을 예상한 시장 전망을 하회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해서도 5.5% 상승을 기록해 전망치 6.2% 상승을 하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달 대비 0.2% 상승해 전망치 0.4%를 역시 하회했고 1년 전과 비교해도 4.7% 상승해 시장 예상 5.2% 상승을 밑돌.

지난달 12% 급락한 휘발유 가격을 반영해 PPI 구성 항목 중 재화 부문이 전달 대비 1.4% 하락해 전반적 지수 하락을 견인했고 식품가격 지수도 3개월만에 하락 전환. 서비스 부문은 0.2% 상승.

이번주 발표된 물가 지표들은 모두 에너지 가격 하락을 반영하며 큰 폭 둔화를 기록, 미국과 이란 사이 갈등의 확대는 결국 물가 지수의 방향을 다시 바꿀 수도 있음을 시사. 다만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 역시 예상 대비 큰 폭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실제 이날 공개된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은 미국의 경제가 최근 몇 주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한편 물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상승했다”고 서술,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지

만 표현의 강도를 직전달의 “적당에서 강력한 속도로 상승” 대비 한 단계 완화함.

연준 의장 “CPI · PPI, 불완전한 지표”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다만 최근의 물가 지표 둔화와 관련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초 물가 상황을 보여주는, 기초적 인플레이션 상태를 측정하는데는 불완전한 지표”라며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를 63개월째 상회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평함. 워시 의장은 이와 함께 연준이 더 작고, 더 효율적인 대차대조표를 갖길 바란다고 언급. 그는 금리 정책이 통화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대차대조표는 확대될 수 있다며 다만 대차대조표가 영구적으로 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함. 한편 워시 의장은 AI 투자로 인한 물가 상승 여부에 대해 단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이날 리사 쿡 연준 이사 역시 CPI와 PPI에 과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디스인플레이션의 신호들을 곧 보지 못한다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워시 의장의 발언과 궤를 함께 함.

다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함.

로이터 “코어위브, 메모리/스토리지 가격 하락 대비 헤지 방안 검토”

이날 로이터는, 네오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가 메모리 및 스토리지 가격 하락에 대비해 금융 파생상품을 헤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코어위브는 AI 인프라 구축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의 메모리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한 공급 물량 확보를 진행해왔음. 다만 공급자 우위 국면에서 체결해 수요 둔화기 메모리 공급 업체에 칩의 가격 하한선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장기 공급 계약은 반대로 수요 둔화 국면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코어위브 등의 구매자에게 시세보다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으로 작용함. 때문에 코어위브 경영진은 메모리 칩 가격 하락 국면을 대비한 헤지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논의된 방안에는 풋옵션 등의 파생상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직 어떠한 헤지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같은 시도는 실제 가격 하락 시기를 특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메모리/스토리지 가격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둔 헤지 시도’라는 위당은 최근 피크아웃 우려와 함께 고밸류 부담을 안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함.

다만 이날 실적을 발표한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업체 ASML은 기대 이상의 2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매출 전망을 대폭 상향해 아직 정점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임을 시사.

오늘은 앞서 6월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힌 세계 최대 파운드리 대만 TSMC가 전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을 진행할 예정. TSMC가 기존 성장 전망과 설비 투자 계획을 유지할 경우 최근 불거진 업종 피크아웃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특징종목

반도체 부진

전일 IBM(-2.70%)이 고객사들의 하드웨어 구입에 편중된 IT 지출을 언급하며 상승했던 반도체주가 이날은 다시 급락으로 돌아섬. 코어위브가 메모리/스토리지 가격 하락 국면에서의 비용 방어를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의 보도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일깨워 상대적 고밸류 종목인 반도체주에 대한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했고 이외 최근 미국 뉴욕주 와 메인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주민 반발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빈발해 이 역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메모리, 서버, 스토리지 등의 수요가 언제까지 늘어날 수만은 없다는 인식을 자극함. 또 중국 최대 DRAM 업체 CXMT(창신 메모리)의 IPO 공모가가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정, 메모리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실망감 확산으로 이어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8.02%)가 전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장 중 900달러를 이탈하기도 했고, 이외 AMD(-3.46%), 인텔(-4.43%), 마벨 테크놀로지(-7.27%), 샌디스크(-8.13%), 델 테크놀로지스(-9.80%), 웨스턴 디지털(-8.78%), 시게이트 테크놀로지(-5.69%),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2.73%), 램 리서치(-3.08%), KLA(-2.55%) 등 관련주 전반이 하락. 웨스턴디지털(-8.78%)은 일본 키옥시아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통합을 중심으로 한 합병 논의를 재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엔비디아(+0.33%)는 젠슨 황 CEO가 특허 회로 기판 제조 과정의 어려움으로 AI 서버 랙 시스템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세미 애널리시스의 분석과 관련, 고객 납품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반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08% 하락했고, DRAM(-6.26%)과 DISK(-5.05%) 등 메모리 반도체주 비중이 높은 ETF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에버코어 ISI는 DRAM과 HBM 공급 부족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주 투자 논리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았다고 평가함.

빅테크 약진

이날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주요지수가 일제히 상승한건 지수 내 영향력이 큰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

애플(+4.01%)이 온디바이스 생성형 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국에서 등록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등하며 재차 사상 최고가를 경신, 이 서비스에는 알리바바(+4.78%)의 AI 모델 큐원(QWen)이 통합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알리바바도 동반 상승했으며 바이두(+1.59%)도 애플과 함께 중국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상승. 다만 중국 규제당국은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 출시일을 밝히지는 않음.

아마존닷컴(+3.02%)과 관련해서는 제프리스 등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AI 산업 내에서의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기대를 근거로 아마존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유니한다고 밝힘.

이외 아마존은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체 아마존 레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헤로텔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외된 농촌 지역의 인터넷 연결을 위한 새로운 광대역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음.

메타 플랫폼스(+3.07%)는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계획과 AI 모델 신버전 등을 중심으로 AI 자본 지출 수익화 연결에 대한 호평을 받는 가운데 7월 들어 상승률이 20%를 돌파.

구글 모회사 알파벳 클래스A(+3.17%)에 대해서는 워렌 버핏이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의 알파벳 투자를 본인이 먼저 제안했으며 과거 투자 기회를 놓친 것은 실수라고 밝힘. 그는 구글이 장기적인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다소 늦게 가졌다고 설명.

금융주 실적 호조에 '신고가'

대형 금융주 실적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이날은 모건스탠리(+0.39%)와 블랙록(+6.63%),뱅크오브 뉴욕 멜론(+5.08%) 등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상승.

특히 전일 발표한 실적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 겸 CEO의 입을 빌리면 미국 은행 역사상 최고 이익이었다고 할만큼 강력했던 JP모건체이스(+1.17%)가 신고가를 경신, 은행주 최초 시총 1조 달러 달성 고지에 바짝 다가섬. 이외 뱅크오브아메리카(+1.60%) 도 신고가 경신. 금융 업종 지수는 0.66% 상승.

이외 특징주

스페이스X(-0.60%)은 4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장 중 공모가 135달러를 상장 이후 처음으로 하회하기도했으나 마감가에서는 공모가를 간신히 지킴.

페이팔 홀딩스(+17.20%)는 결제업체 스트라이프와 사모펀드 어드밴트 인터내셔널이 530억 달러에 페이팔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함께 급등. 주당 인수 가격은 60.50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약 28% 높은 수준.

프로그레시브(-9.43%)는 6월 실적 악화를 알리며 급락했고 이외 올스테이트(-4.34%), 에이온(-1.04%), 트래블러스(-2.27%) 등 보험주 동반 하락.

루시드 그룹(+28.79%)는 파산 신청 검토하고 있다는 앞선 루머를 다시 한 번 반박한 가운데 강하게 반등. 영업 활동 지속을 위한 유동성이 충분한 상태라고 설명.

존슨앤드존슨(-0.43%)은 전반적인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의료기기 부문 매출이 기대를 하회한 가운데 하락.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1.96%)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이란 공방 지속..국제유가 소폭 상승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확전 흐름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국제유가는 제한적이거나 상승세를 지속함. 이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의 군사 작전 범위를 현행 대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목표는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라며 타격의 데드라인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길 바란다고 경고함. 이란도 이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상선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유지는 자국의 국가 안보와 달아있다고 말함. 이란측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실익이 없는 종전 양해각서(MOU)는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33% 상승한 배럴당 79.60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9월물도 0.97% 상승한 배럴당 84.95달러에 거래를 마침.

국채금리 이틀 연속 하락

미 국채 금리는 예상을 하회한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단기물을 중심으로 하락(가격 상승). 초반 중동 불안을 반영해 상승하던 국채 금리는 이어 전해진 인플레이션 둔화 관련 소식에 하락 전환함.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달 대비 0.3% 하락해 10개월만에 하락 전환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며 보합을 예상했던 시장 전망을 크게 밀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달 대비 0.2% 상승해 예상치에 못 미쳤고 나아가 전달 발표됐던 생산자물가지수는 대폭 하향 수정됨. 여기에 뉴욕 연은 총재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한 언급과 연준 배이지북을 통한 물가 평가 하향 조정까지 더해져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크게 약화,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짐.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5.90bp 하락한 4.1346%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4.20bp 하락, 4.5473%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는 2.50bp 하락한 5.0793%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전장 10% 중반대에서 10% 초반대로 낮춰 반영. 9월 인상 가능성도 50% 중반대에서 40% 후반대로 하락.

달러 가치 이틀 연속 하락

미국 달러화 가치는 전일 사흘만에 하락 전환한데 이어 이틀째 하락세를 이음.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이 차기 재무장관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마무드 장관은 기존 재무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된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 장관보다 우파적인 인물로 평가돼 재정 건전성 강조에 대한 기대감이 파운드화 강세로 이어짐. 여기에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에 따른 국채 금리 하락이 더해져 달러 가치는 하락.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4% 하락한 100.513을 기록했고 파운드-달러 환율은 1% 이상 급등.

전일 서울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8.30원 하락한 1,484.70원을 기록한 달러-원 환율은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90원)를 감안시 전일 주간 거래 증가 대비 1.30원 상승한 1,485.10원에 마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